

# EKC2022 와 함께하는 마르세유/프로방스 근교 여행가이드

작성자

김덕희 박사 (프랑스과협)

많은 프랑스 과협 및 타 유럽 과협 회원님들은 이미 수차례 소개되어 알고 계시겠지만, EKC 2022 행사가 7 월 19 일에서 22 일 사이에 프랑스 마르세유(Marseille)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 해 EKC 2022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 년만에 개최되는 대면 행사이며, 특히 행사 기간이 여름 휴가 기간과 겹쳐 학회 참석 전 후에 개인적인 휴가를 계획하시는 프랑스 과협 회원님들을 위해 'EKC 2022 와 함께하는 마르세유 근교 여행가이드' 라는 제목으로 프랑스과협 소식지에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세유 및 인근 남부 프로방스 지역은 사계절 어느 때나 여행을 즐기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사랑받는 지역입니다. 특히 한 여름의 지중해와 프로방스 지역은 뜨거운 햇살로 더울 수도 있지만 그늘만 있으면 한국과는 달리 습하지 않아 여행하기에 그리 힘들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강한 햇살로부터 피부와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마르세유 보다는 근교에 가볼만한 곳들이 많고 다 소개하기는 어렵워, 마르세유를 기점으로 편도 두 세시간 거리 내 주변 내에 가볼만한 곳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한 마르세유와 근교 여행지**

마르세유 시내는 그다지 많은 관광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학회 장소인 Palais du Pharo 가 마르세유 시내 중심인 구항구 (Vieux-Port)내에 있고, 구항구 근처의 시가지와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MUCEM) , Cathedrale La Major 이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장소입니다. 특히 해지는 저녁 마르세유의 상징인 Basilique Notre-Dame de la Garde 에서 바라보는 지중해 바다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구항구에서 유람선을 타면 소설 몽텍크리스토 백작의 배경이 된 이프섬(Ile d'If)이나 Frioul 섬 (Iles du Frioul) 등 인근 섬이나 깔랑크(Calanque)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깔랑크란 지중해 해안, 특히 마르세유와 카시스 사이에 있는 해안절벽으로, 융기된 해안이 침식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해안선, 해안 절벽을 말합니다. 깔랑크는 유람선 관광 뿐 만 아니라 보트, 카누 등의 해상 스포츠, 해안절벽/해변 근처를 따라 하이킹, 해안가에서 수영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로 즐길 수 있습니다. 도보로 하이킹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르세유 시내 동쪽에 위치한 Aix-Marseille 대학 튀미니 캠퍼스

(Faculté des sciences de Luminy, Aix-Marseille Université)나 까시스(Cassis)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사진 1 마르세유 전경, 산 위에 보이는 성당이 마르세유의 상징인 Basilique Notre-Dame de la Garde 으로 구항구에서 버스나 Petit Train 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tripadvisor.fr/Attraction\\_Review-g187253-d9810205-Reviews-Le\\_Vieux\\_Port-Marseille\\_Bouches\\_du\\_Rhone\\_Provence\\_Alpes\\_Cote\\_d\\_Azur.html#/media-atf/9810205/267392030:p/?albumid=-160&type=0&category=-160](https://www.tripadvisor.fr/Attraction_Review-g187253-d9810205-Reviews-Le_Vieux_Port-Marseille_Bouches_du_Rhone_Provence_Alpes_Cote_d_Azur.html#/media-atf/9810205/267392030:p/?albumid=-160&type=0&category=-160))



사진 2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것이 MUCEM 으로 건물 꼭대기에서 생장 요새(Fort Saint-Jean)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Fort Saint-Jean 에서 구항구를 내려 볼 수 있는 View Point 가 있으므로 함께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MUCEM 은 Rudy Ricciotti 가 설계한 건물로 서울 한강 선유교가 그의 설계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출처: [https://www.getyourguide.com/marseille-l292/marseille-billet-d-entree-coupe-file-au-mucem-t150728/?visitor-id=91TUWM3AST90Z4EF2TIPL064AQ6OZQ59&locale\\_autoredirect\\_optout=true](https://www.getyourguide.com/marseille-l292/marseille-billet-d-entree-coupe-file-au-mucem-t150728/?visitor-id=91TUWM3AST90Z4EF2TIPL064AQ6OZQ59&locale_autoredirect_optout=true))

마르세유에서 남동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작지만 아름다운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해안 마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을로는 Cassis, La Ciotat 등이 유명합니다. 두 마을 모두 여름 휴가철에는 해수욕과 지중해식 해안요리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Cassis 의 경우 해수욕뿐만 아니라 깔랑크를 유람선으로 혹은 하이킹으로 즐기려는 사람들로 넘쳐 납니다.



사진 3 깔랑크

(출처: <https://chouetteworld.com/visiter-calanques-cassis-marsei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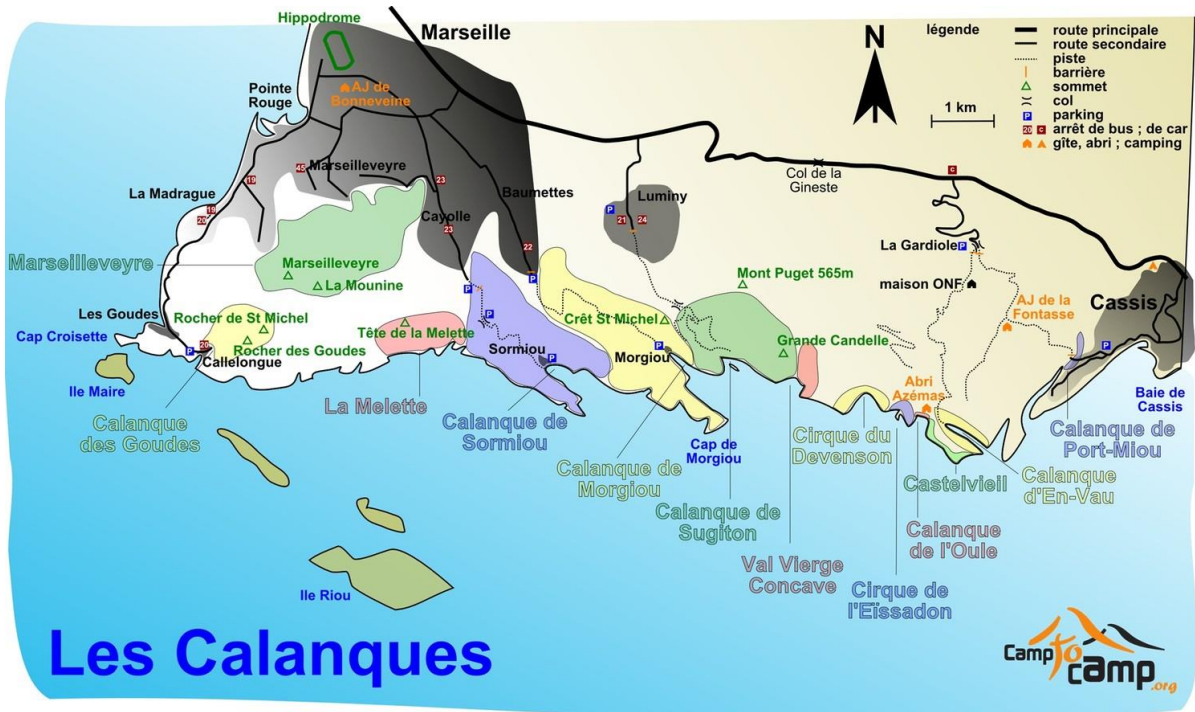


사진 4 깔랑크 위치, 가운데 Luminy 가 Aix-Marseille 대학의 Luminy Campus 를 의미합니다.

(출처: <https://www.camptocamp.org/areas/820370/fr/calanques>)

마르세유에서 북쪽으로 약 30 분 거리에는 '분수의 도시', '작은 파리'라 불리는 액상 프로방스(Aix-en-Provence)가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 중심 Rotonde 분수를 중심으로 도보로 작은 상점들과 레스토랑, 바 등이 밀집한 아름다운 골목들을 거닐 수 있습니다. 액상 프로방스는 폴 세잔(Paul Cézanne)의 고향으로 그가 작업한 공간(Atelier Ceranne), 그라네 박물관 (Musée Granet) 등도 더위를 피해 들릴만한 곳입니다.



사진 5 까시스 전경 (출처: <https://www.visit-cassis-360.com/>)



사진 6 액상 프로방스 거리 풍경

(출처: <https://www.sncf-connect.com/article/48-heures-aix-en-provence-suivez-le-guide-66268>)

앞에서 소개한 까시스, 라시오타, 액상프로방스 모두 마르세유에서 지역열차(TER),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수시로 운행되고 있어 자기차량이나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 **프로방스의 산과 들: 라벤더 들판, 베르동 협곡**

프로방스를 소개하는 많은 방송들에 자주 소개되는 곳들로 베르동 자연 공원(Parc naturel regional du Verdon)이 있습니다. 협곡에 위치한 에머랄드 빛의 큰 호수로 유럽의 그랜드 캐년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대표적인 협곡의 호수로는 Lac de Saint-Croix, Esparron-de-Verdon 등이 있으며 여름에는 보트 투어, 수영, 호숫가 및 계곡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넘쳐 납니다. 다만 이곳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차량이나 렌트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진 7 베르동 협곡

(출처: <https://lesgorgesduverdon.fr/gorges-du-verdon.html>)

모 항공사의 '너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광고 이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스티에 생트마리(Moustiers-Sainte-Marie)와 라벤더 발로 유명한 발랑솔(Valensole)이 베르동 계곡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함께 여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라벤더밭은 통상 7 월 중순/말에 라벤더를 추수하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 발랑솔 라벤더 축제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여행하다 보면 라벤더 뿐만 해바라기 등 아름다운 꽃으로 덮힌 들판이 여기

저기 펼쳐지므로 잠시 차를 멈추고 인생사진들을 남기실 수 있지 기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진 8 프로방스의 예쁜 마을, 무스티에 생트마리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7802#home>)



사진 9 발랑술의 라벤더밭

(출처: <http://solli-kanani.com/2016/08/purple-lavender-fields-provence/>)

특히 파리나 북동부쪽 프랑스에서 자기 차량으로 학회를 참석하시는 분들 중 그르노블(Grenoble)을 통해 A51 국도/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마르세유로 오시는 분들은 오고 가는 여정 중에 추가하길 추천드립니다.

### **빛나는 햇살과 잊지 못할 해안으로 유명한 남부 해안 도시들**

마르세유에서 이탈리아 국경에 이르기까지 약 250 km 사이에는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꼬따쥐르(Cote d'Azur) 혹은 영어로 프렌치 리비에라(French Riviera)라는 일컫는 세계적인 해안 휴양지역이 있습니다. 마르세유에서 다소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TGV 전용선이 구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마르세유 공항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항공편이 많은 니스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하여 추천드립니다.

- 더 설명이 필요없는 도시 니스(Nice): 영국인의 산책로(La promenade des Anglais)라 불리는 해안가 뿐만 아니라 구 시가 등 가 볼만한 곳이 많으며,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내에 위치한 샤갈 미술관, 마티스 미술관에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더불어 니스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니스 소개에 항상 같이 언급되는 생폴드방스 (St Paul de Vence), 에제(Eze), 그리고 도시국가인 모나코(Monaco)도 결코 놓치기에는 아까운 곳들입니다.

- 영화제로 잘 알려진 칸(Cannes): 모래사장의 해수욕장과 그 건너편에 유명 부티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 앙티베 (Antibes): 니스와 칸느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파리, 바로셀로나 등 대도시어나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이곳 작은 해안 마을에도 있습니다.
- 썬트로페 (Saint-Tropez): 구 시가의 좁은 거리, 항구, 광장, 작은 박물관, 미술관이 즐비한 많은 헐리웃 스타들이 사랑하는 휴양지입니다. 브릿지 바르도로 인해 더 유명해진 도시이죠.
- 이외에도 수 년전 프랑스와협 춘계학술대회 장소로 개최되어 기억되고 있는 도시 Frejus, Saint-Maxime 여름철 휴가객으로 넘쳐나는 도시들 입니다.



사진 10 생폴드방스의 예쁜 골목길

(출처: <https://littleweekends.fr/guides-voyage-france/saint-paul-de-vence/>)



사진 11 생트로페의 근처의 해변

(출처: <https://www.villahostels.com/what-to-see/saint-tropez-beach/>)

### ***프로방스의 작은 마을들***

프랑스의 경부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A7 고속도로를 통해 마르세유로 오시는 분들 혹은 바로셀로나, 툴루즈, 몽펠리에에서 A9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 아비뇽 근방 몇 개의 마을들을 추천합니다. 아비뇽 유수의 교황청으로 유명한 아비뇽(Avignon)과 반고흐의 작품 무대이자 폴 고갱과 함께 생활했던 아를(Arles)과 같이 널리 알려진 도시들도 있지만 아비뇽 인근의 L'Isle-sur-la-Sorgue, Gordes, Roussillon 등도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작은 마을들입니다. 아비뇽에서 남쪽으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Les Boux-de-Provence는 중세 시대의 느낌을 간직한 집들이 즐비한 작고 아름다운 골목길, 성채와 특히 폐 채석장을 이용하여 만든 Carrieres de Lumieres (<https://www.carrieres-lumieres.com/>)등도 가볼만한 곳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12 1600년대 초 홍수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한 생베네제교(Le Pont Saint-Bénézet)와 그 뒤로 보이는 아비뇽 교황청, 매년 7월 3주간 아비뇽 교황청에서는 세계적인 연극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출처: <https://avignon-tourisme.com/decouvrir/voir-lessentiel/avignon-patrimoine-unesco/le-pont-saint-benezet/>)



사진 13 레보드프로방스에 위치한 빛의 채석장(Carrieres de Lumieres) 내부, Venice, La Serenissima/Yves Klein, Infite Blue 라는 주제로 환상적인 빛의 공연이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출처: <https://carrieres-de-lumieres.tickeasy.com/en-GB/home>)

엑상프로방스 인근에는 이방인이라는 소설의 저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알베르 까뮈가 죽기 전 살았고 그의 묘가 있는 Lourmarin, 마을은 아니지만 안도타다오가 설계한 건물과 프로방스 와이너리를 살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Chateau La Coste 를 추천드립니다. 프로방스 지방은 레드나 화이트 와인보다는 호제(Rose) 와인이 보다 사랑받으며 마르세유 인근 Bandol 지역에는 호제 와인으로 유명한 많은 와이너리들이 있습니다.

**프로방스의 여름 밤 음악회**

남프랑스는 아름다운 자연, 300 일 이상의 맑은 날로 인한 축복받은 날씨로 인한 풍요로움으로 인해 철학이나 과학의 발전 보다는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가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7 월의 여름 밤에는 수준 높은 공연이 근처에서 많이 펼쳐집니다. 엑상프로방스의 여름 음악 페스티벌(<https://festival-aix.com/en>)과 더불어 특색있는 야외 음악 공연으로 La Roque d'Antheron 이라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펼쳐지는 국제피아노 페스티벌(<http://www.festival-piano.com/fr/accueil/bienvenue.html>)과 Orange Festival (<https://www.choregies.fr/>)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은 엑상프로방스 근방의 La Roque d'Antheron 라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펼쳐지는 피아노 페스티벌로 최근 3-4 년간 조성진, 예프게니 키신(Levgueni Kissine) 등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참여하여 여름 밤 야외공연장에서 수준 높은 음악회를 선사하였습니다. Orange Festival 은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 축제와 비슷하게 옛 로마시대 원형극장 내에서 여름 밤 환상적인 공연을 선사합니다. 런던, 파리나 밀라노의 오페라 하우스나 유명 극장에서 아름다운 하모니의 공연과는 달리 별이 빛나는 여름밤 자연의 소리와 더불어 연주되는 환상의 하모니는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진 14 La Roque d'Antheron 에서 열리는 피아노 페스티벌

(출처: <http://www.festival-piano.com/fr/accueil/bienvenue.html>)



사진 15 오랑쥬 여름 페스티벌

(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405302229516465>)

### **덧붙이는 말**

이 글을 작성하면서 대표적인 몇 개의 사진자료를 추가하였으나, Google 과 같은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좀더 많은 사진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기 위해 도시나 마을 등 장소 명칭을 프랑스로 표기하였습니다. 교통편 등의 여정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실 때 Google Map 등을 이용하여 상세 위치를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글을 정리하기 전 YouTube 상에 있는 몇 개의 동영상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하시면 여행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몇 개의 자료들은 KBS 와 EBS 에서 게시한 자료들이라서 한번 살펴보면 마르세유와 프로방스 지역들을 이해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될 듯하여 추천드립니다.

KBS 여행 걸어서 세계속으로: 맛의 유혹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리옹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zlBC1CavlsQ>

KBS 여행 걸어서 세계속으로 반 고흐와 폴 세잔, 세계적인 화가들이 사랑한 도시 '아를, 엑상프로방스'

<https://www.youtube.com/watch?v=ULydB4bz85I>

KBS 여행 걸어서 세계속으로: 프랑스 코트다쥐르\_니스, 에즈, 망통, 생폴 드 방스 여행 (KBS\_2021.3.20 스페셜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ap7mYGkoogk>

EBS 다큐멘터리 : 세계테마기행 - 색다른 여름 남부 프랑스 1 부- 언제나 로망 프로방스\_#001 (까시스, 무스티에 생트마리)

<https://www.youtube.com/watch?v=4clypxZauVQ>

EBS 다큐멘터리 : 세계테마기행 - 색다른 여름 남부 프랑스 1 부- 언제나 로망 프로방스\_#002 (발랑솔)

<https://www.youtube.com/watch?v=p0r8LHL-Szk>

EBS 다큐멘터리 : 세계테마기행 - 색다른 여름 남부 프랑스 1 부- 언제나 로망 프로방스\_#003 (발랑솔, 루시용)

<https://www.youtube.com/watch?v=QS2ebeq1eJ8>